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교훈이다. 그래서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고 반갑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유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던 조선시대, 가난한 선비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보편적이었지만 ‘부자’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시대는 변했고 세상은 바뀌어 부자에 대한 개념도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란 부자이기 위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18년간 전라도 강진에서 귀양 살며 편지를 통해 아들에게 많은 교훈을 내려주었다. 교훈 중의 하나가 바로 재물(財物)을 오래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세상에 옷이나 음식, 재물 등은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옷이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고 만다. 재물 또한 자신에게 전해준다 해도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다만 몰락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두 아들

재물을 보존하며 아름답게 사는 삶

에게 보여준 가계(家誡)라는 말을 앞세우고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산은 “천하의 부자 의문이 참고에 감춰둔 재물은 흔적도 없지만 자신이 소부(疏傅)가 황제에게서 하사 받은 황금을 친구들에게 나눠준 일은 지금까지도 전해 온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실례를 꼭 나열하여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준 재물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진리를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에 대한 기막힌 답변까지 이야기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 재물을 쓰는 것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질로서 물질적인 향락을 누리려면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형태 없는 것으로 정신적인 향락을 누리려면 변하거나 없어질 이유가 없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같은 곳)

이런 내용을 정밀하게 읽어보면, 부자도 천당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자라도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어준다면, 정신적인 향락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재물은 보존되고 겸하여 쫓다른 이름도 천년 뒤까지 남길 수 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역시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고 있다. 유독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회가 우리나라인데, 근래에는 그런

것도 많이 변하면서 기부천사들이 나오고 그 높은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따뜻하고 아름답게 베풀고 사는 삶이 존경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

올해 초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세상의 화제가 된다는 보도가 나와 그 어른의 기부하고 베풀고 사는 삶이 조명되면서 자본주의가 아름답게 꽃피워 비난에서 벗어나는 화제로 바뀌었다. 그 어른은 79세에 은퇴하며 재산을 온통 뜻 깊은 일에 기부하여 큰 칭찬을 받았다. 사전과 진주에서 한약방 경영으로 재산을 모아 천년토록 쫓다른 이름을 전할 베품의 삶을 살았더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물질을 물질로 사용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사용한 영원토록 존재할 재물을 보관한 셈이니 다산 선생의 지혜를 그대로 활용한 어른이었다.

우리 광주에도 자랑할 만한 어른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 94세로 ‘서산콘크리트’라는 중소기업을 경영해 성공한 사업가다. 재물을 욕심을 버리고 대부분의 모든 재산을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이나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베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진주의 어른 못지않게 칭찬을 받아야 할 우리 시대의 어른이다. 영흥초 회장이 바로 그 어른이다.

재물이란 언젠가는 없어지게 마련이다. 영원토록 보존할 방법은 오로지 남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는 일뿐이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각박한 부자들, 손을 놓아줄 곳은 많은데 기부문화 활성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이례서 염 회장의 아름다운 삶이 더욱 빛이 난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기억을 선택한다면.

영화 안에서, 영화 밖에서도 즐긴 따라다니는 질문이다.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고도 하고 ‘영화 바깥에서 다시 시작된다’고도 하는데,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 듯 싶다. 사실 나도 몹시 궁금하다.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간직하고 싶은지...

삶을 통틀어 무엇 하나를 골라낸다는 것, 쉽지 않다. 심지어 천국으로 가지고 갈 단 하나의 기억이라니. 아무리 돌아봐도 무엇을 선택할지 만만찮을뿐더러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자꾸 다른 게 또 아쉬워지니 그 역시 탐탁하지가 않다. 결국 어느 것도 선택을 못하거나 때면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영화 ‘원더풀 라이프’ (고래에다 히로키즈, 1998)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묻는 작품이다. 삶에서 제일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을 딱 하나만 골라보라는 것이 영화의 골자이기나와 영화 속의 영화가 될 그 몸들은 작품

기억의 주인

속 망자들뿐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망자들은 천국으로 가기 전 ‘립보’라는 중간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림보의 직원들은 그들이 기억을 떠올리고 선택하는 것을 도우며 영화로 재현하는 일을 담당한다. 망자들은 행복 가득한 그 기억을 안고 림보를 떠나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는 것은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목직관 문제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뭇 진지한 과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림보의 직원들은 유난스럽게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어느덧 깊은 사색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영화 속 인물들도 선택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돌아보면 온통 고통스럽고 싫은 기억뿐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많은데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느냐 되묻는 사람도 있다.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선택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망자들이 림보에 머무는 기간은 단 일주일, 고된하고 선택할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다. 기억을 재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망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 삶의 뒤안을 돌아본다.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윽고 망자들은 말한다. 통학길 버스 차창 너머로 불어오던 바람, 첫 비

행의 순간에 빛나던 구름, 귀지를 팔 때 느껴지던 엄마의 포근한 무릎 감촉, 딸을 시집보내던 날, 대술에서 먹었던 주먹밥, 빨간 드레스를 입고 춤추던 어린 시절... 그때가 행복했다고.

영화는 기억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심하는 과정만 담은 것이 아니라 림보 직원들의 마음의 변화도 함께 보여준다. 림보의 직원들은 죽었으나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정으로 림보에 남아 있는 그들 또한 망자들과 소통하며 심적 변화를 겪는다.

영화는 이처럼 기억을 통해 삶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과거를 참회하고 속죄하는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 반추하고 추억하며 자신의 관점을 확보하는 쪽에 비중을 둔다.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해석함으로써 삶의 혹은 기억의 주인이 되는 것.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자신만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영화 ‘원더풀 라이프’는 단 하나의 기억만 선택해야 한다는 설정도 신선하지만, 그것을 영화로 재현해서 다시 보기 한다는 발상도 참신해 보인다. 말하자면 자신의 기억을 원천으로 자신만의 영화 한 편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그것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한, 영원히 간직할 가장 아름다운 영화다. 영화(재현된 기억)는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끼꺼이 삶의 아름다움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영화는 다시 또 묻는다.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기억을 선택한다면.

社說

군공항 반대에 17억 쓴 무안군 철저히 감사해야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에 4년 동안 세금 17억 여원을 쓴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광주일보는 지난 5월 무안군의 예산결산 보고를 자체 분석해 5년 동안 28억원의 예산이 군 공항 이전 반대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엔 정보공개로 통해 지난 4년간 17억 여원의 혈세가 군 공항 이전 반대에 쓰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일보가 무안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억 7502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군이 직접 편성한 예산은 13억 7502만원이고 나머지 4억원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법대위)에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무안군과 법대위가 실제 쓴 예산은 13억 10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73.8%에 그쳤지만 다다수 예산이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홍보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무안공항 활성화와

대학 강의 거래 성행...과목 늘려 사재기 차단

새학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학가에 서 공공연하게 ‘강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의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재기’로 수강 신청해 둔 특정 강의를 다른 학생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는 강의 거래는 필수 과목인 전공 강의나 인기 강의에 수강신청이 몰리는 점을 악용해 판을 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해당 과목을 꼭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강의를 구입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전남대 익명 커뮤니티에는 강의의 사고 파는 게시물 수십 건이 올라왔다. 거래 가격은 1만원~5만원대가 가장 많고 인기 강의는 10만원을 넘기도 한다. 강의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PC방 등에서 만난 뒤 판매자가 수강 취소 신청을 하는 즉시 구매자가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요청을 받아 “강의 거래를 멈춰 달라”는 공지문을 게시판에 올렸다. 전남대는 학칙에 학생 간 수업 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커뮤니티를 이용해 음지에서 이뤄지는 거래 행위를 일일이 적발해 징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학생회가 올해 초 진행한 설문 결과 33.8%가 “실제 강의 거래를 하거나 목격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강의 거래는 만연해 돼 있다. 이런 상황은 전남대뿐 아니라 다른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다.

강의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의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 측도 수강 가능 인원을 턱없이 적게 설정해 강의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강 과목이나 수강 인원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사재기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강진군은 청자 문화를 대표하는 보고(寶庫)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 68호)에 포함된 대구면 용운·계울·사당·수동리 일대에는 고려시대 가마터 290여 곳이 밀집돼 있다. 사당리 43개 가마터는 최고급 청자가 생산되던 고려 중기와 후기까지 운영됐다. 청자 절정기 비색과 상감청자를 비롯한 고려청자의 다채로운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공간이다. 강진군과 문화재청이 2019년부터 연차 발굴 조사를 시행하는 이유다.

연차 발굴조사 첫 해 모습을 드러낸 사당리 ‘만두요’(饅頭窯)는 학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만두 형태와 유사한 중국식 타원형 가마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됐다. 우리나라 가마의 전형은 경사면에 길게 만들어진 타원형 오름가마(穹窯, 등요)다. 등요는 1000도 이상, 만두요는 700도 안팎으로 토기를 굽는다. 조사결과 사당리 만두요는 초벌구이용으로 쓰였고 벽돌과 가와로 가마형태를 만들었다. 가마 내부에서 도자기 조각과 목탄 등이 출토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독립학자를 자처하는 이희관씨는 최근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관요에서는 관청 납품용 고품질 자기를 만들었다. 사당리 만두요도 이런 이유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진에서 새로운 자기소성체계가 성립됐다는 이씨의 견해가 통설이 되려면 추가 발굴에서 만두요가 더 나와야 한다. 한 반도에서 유일하게 발굴된 만두요를 토대로 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사당리 만두요가 초벌구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용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 발굴과 연구가 이뤄져 강진 고려청자의 새 면모가 밝혀질길 기대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기 고

통일 효도열차 타고 북녘까지 가는 꿈



김은선
주부

2개월 낯짓 지난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 가슴 한켠이 아련해진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곳에 가보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바라 보기만 해야 하는 북녘 땅이 바로 눈 앞에 있었다. 우리는 언제쯤 저 곳에 갈 수 있을까.

지난 6월 1일 광주 남구청의 ‘통일 효도열차’에 몸을 싣고 민간인 신분으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DMZ를 다녀왔다. 평소 잘 다니는 도서관의 안내문을 보고 온 좋게 참여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과 가만 좋겠다는 생각에 함께 신청했다. 살면서 DMZ를 가 볼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평일이었지만 큰 고민하지 않았다. 직장도 학교도 하루 정도는 쉬고 다녀올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아침 7시 출발지인 호천역 앞에는 300명 가량의 참여자가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함께 할 분들이 구나’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통일 효도열차라는 이름처럼 이산가족이라서 북한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오셨을까, 정말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오

신 분들이 많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딸과 기차 여행을 하며 DMZ도 다녀올 수 있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는데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을 보니 뭔가 더 뜻깊은 여행이 되겠구나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최북단 도라산역을 딸과 함께 가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통일이라는 꿈을 담아 모두가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열차는 평소 서울 갈 때 뒀던 SRT하고는 확실히 달랐다.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열차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괜히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우연히 마주 앉게 된 노부부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여쭙어 보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다정한 그 모습이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효도열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라산역까지 꼬박 6시간 가량을 달려야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강의, 레크리에이션, 밴드공연, 국악공연, 마술공연, 보이는 라디오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벤트가 펼쳐졌다. 특히 통일열차인 만큼 마술에도 통일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 보여 주었는데 재미에 감동까지 더해졌다.

통일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통일을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통일을 위해 몇 십년을 일하고 계신다는 한 강사분이 기억난다. 어떤 사망감염엔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쳐 일하게 되는 걸까. 그런 분의 강의를 들으니 통일되면 잘 사는 우리나라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기존 생각이, 통일되면 더 성장하는 경제대국이 되겠

구나로 바뀌게 되었다. 남북한이 서로를 안아주며 하 나되는 날을 잠시 함께 꿈꿔 본 순간이었다.

군인들의 마중을 받으며 도라산역에 도착한 후 준비된 버스로 같이타고 도라산 전망대로 이동했다. 해설사의 설명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쫓종 세웠다. 우리나라인데 꼭 다른 나라 관광은 듯 새롭게만 보이는 풍경들이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망원경 없이도 보이는 저 너머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휴전선, 38선이면 철조망으로 막혀져 있을 줄만 알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말이다. 가까이 보이지만 갈 수 없는 우리의 땅을 딸에게 보여주며 가슴 아픈 분단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섰다. 열 살인 아이는 그 날 어떤 것을 가슴에 담아 두며 자라게 될까?

도라산 전망대에는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곳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도 있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길 바래본다.

도라산역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차역사 안에 붙어있던 긴 노선이 담긴 안내판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기차타고 여행할 수 있을 그 날을 상상하니 웃음이 지어진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 효도열차에 오르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큼 통일에 한걸음 한걸음 더 가까워져 가기를 염원한다. 돌아오는 길, 딸 아이는 이 열차에 또 타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해 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마음속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읊조려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